

트럼프 재집권 1년...자유무역 질서 뒤바꾼 관세전쟁

美, '기본+상호+품목+제재' 다중관세로 동시다발 폭격
곧 대법원 판결 예상...어떻게 나와도 혼란 불가피 할 듯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세계의 자유무역 질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1년 만에 뿌리째 흔들렸다. 동맹국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는 웅단폭격 식 관세 부과로 각국은 '패닉'에 빠졌다.

국내에서도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소

송으로 이어졌다. 지난 1년 간 트럼프 행정부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잡은 관세 정책은 이르면 14일(현지시간) 나올 가능성이 있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관세 정책은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과 함께, 미 정부가 이에 대비해 준비 중인 '플랜 B'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이 상호 이익을 증진한다는 기존 통념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을 위한 보호 무역주의를 구현할 카드로 대선 때부터 주장한 관세 정책을 취임 직후 꺼내 들었다.

매우 거칠고, 일방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방식이었다. 그는 전문가 의견 수렴이나 의회의 승인을 생략한 채 국제비상경제 권한법(IEEPA) 등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통해 속전속결로 관세 정책을 폈다.

관세를 활용해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쇠퇴한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포석이었다.

기본관세를 깔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얹은 데 이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입품에는 품목별 관세도 매겼다. 중국 등을 향해선 '펜타닐 관세'라는 제재성 관세를 부과했다.

브라질의 경우 '야권 인사 탄압'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고율의 관세가 정해졌다.

동시에 유럽연합(EU)의 국방비 증액, 제재 대상 국가를 향한 압박, 각지의 분쟁 중재에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외교적 영역의 지렛대로 확장했다.

관세 자체만으로 세계 경제가 들쭉인 데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었다. 국가별로 차등을 둔 상호관세의 경우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후 각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도 마친가지였다.

품목별 관세 역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품목'에

'얼마의' 관세를 선언할지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상대방에 145%와 125%라는 비상식적인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가 이를 보류하기를 반복하는 와중에 세계 경제는 냉·온탕을 오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째 세계 경제를 뒤흔든 관세 정책은 곧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4일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이란 시위 현장의 보안군들.

AFP

이란 사망자 1만2000명 추정...“하메네이 발포령” 주장도

국영방송도 ‘순교자 많아’ 인정...“테러단체 탓” 책임 돌려

이란의 경제난 항의의 시위와 관련해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당국이 갈수록 강도 높은 진압에 나서면서 자백 강요 등 사법절차를 둘러싸고 또다른 인권 유린 우려도 낳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까지 시위가 17일간 이어지면서 약 20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1847명은 시위 참가자, 135명은 군과 경찰관 등 정부 측이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 9명, 시위대와 무관한 시민 9명 등도 사망했고 체포된 인원이 총 1만6700명을 넘는다고 이 단체는 언급했다.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의 경우 시위대 734명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IHR이 입수한 미확인 정보에 따르면 사망자가 6000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IHR은 중부 이스파한 지역의 법의학시설에 등록된 시위 관련 사망자만 1600명

에 달한다며 “숨진 이들의 상당수가 30대 미만”이라고 전했다. 일부 희생자는 일반 총탄과 신탄 모두에 맞았다고 한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 터내셔널은 이날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학살이 자행돼 최소 1만2000명이 죽었다”고 보도했다. 사망 사례 대부분이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그에 연계된 준군사조직 바시즈민병대 소속 대원들의 총격에 따른 것이라고 이 매체는 추정했다.

또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와 대통령실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아

아툴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직접적인 지시로 3부 요인의 승인 하에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고 이 매체는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한 관리자는 시위 국면에서 숨진 이들이 약 2000명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시민과 군경 사망자가 발생한 책임을 '테러범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이날 이란 국영방송도 무장·테러단체로 인해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는 발언을 보도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지난달 28일 시위가 시작된 이후 이란 매체에서 사망자가 다수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완벽한 시공, 완전한 안전”

대선소방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자)대선소방설비산업

(주)대선이엔지

(자)대선산업개발

(주)일등소방

(주)유덕전기소방공사

(주)엔에프건설

광주 서구 유덕로6번길 34(대선소방그룹)

E-mail : hd0119@hanmail.net

Fax : 062-371-7118

Tel : 062-381-7119